

『金匱要略』의 婦人妊娠病에 대한 考察

金政勳·尹暢烈*

關於『金匱要略』之婦人妊娠病的研究

金政勳·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通過這個研究了得此, 本條論述妊娠病主要有 妊娠惡阻 妊娠腹痛 妊娠下血 妊娠小便不利 妊娠水氣 及胎動不安等. 其內容還涉及了妊娠診斷和養胎法. 妊娠的診斷, 可從切脈而知 如“陰脈小弱” 還可參考《內經》中「平人氣象論」, 「陰陽別論」, 「腹中論」等篇所載妊娠之脈. 但這些只能做臨床診斷依據之一, 供臨證時參考, 不可拘泥, 當結合經水來潮等情況, 進行診斷方為準確. 妊娠惡阻, 輕的, 因脾內不和, 營衛不調而致者, 症見食減, 嘔吐者, 宜調陰陽、和榮衛, 方選桂枝湯, 重的, 因脾胃虛弱, 寒飲內停者症見嘔吐不止等, 治以溫中益氣、蠲飲降逆, 方選乾薑人參半夏丸. 妊娠腹痛, 病機各一, 治法有異. 陽虛寒盛而致者, 見腹痛惡寒等, 治以溫陽去寒, 方用附子湯. 沖任虛寒而致者, 症見腹痛、下血等, 治以溫經暖宮, 方用膠艾湯, 肝脾不和而致者, 症見腹痛頭昏等, 治以養肝健脾, 方用當歸芍藥散. 當然亦可據證擇用 當歸散、白朮散. 妊娠下血, 當有虛實之分. 實者當祛瘀除癥. 方用桂枝茯苓丸. 虛者, 沖任不固, 屬寒者, 當溫經補血、調理沖任, 方用當歸膠艾湯. 妊娠小便病變, 血應有熱. 氣鬱化燥而致者, 治以養血潤燥, 消熱解鬱, 方用當歸貝母苦參丸; 氣化受阻, 水氣內停而致小便不利者, 治以通竅利水, 方用葵子茯苓散. 胎動不安, 血虛濕熱而致者, 治以養肝, 益脾, 消熱除濕, 方用當歸散; 脾虛寒濕而致者, 治以健脾除濕, 益中安胎, 方用白朮散.

I. 緒 論

『金匱要略』은 1065年 校定醫書局에서 王洙가 발 견한 『金匱玉函要略方』을 編輯·校訂하여 傷寒部分과 重複되는 部分을 제외한 나머지를 再編輯하여 『金匱要略方論』이라고 한 것으로부터 현재에 전하게 되었다¹⁾.

『金匱要略』과 『傷寒論』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病證들을 비교해 보면, 『傷寒論』에서는 外感寒邪

에 의하여 變化가 급하게 나타나며 六經을 위주로 病理變化가 나타나므로 祛邪를 위주로 治療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 『金匱要略』에서는 雜病은 주로 內傷自病으로 인하여 證狀의 變化가 더디게 나타나며 臟腑經絡을 위주로 病理變化가 進行되므로 扶正의 方法을 위주로 治療하며 去邪의 方法은 補助로 使用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중 婦人科疾病에 관련된 부분은 『傷寒論』에서도 언급이 몇군데 되어 있지만 『金匱要略』에서는 세 편에 나누어 妊娠과 出産 그리고 産後雜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婦人科學은 東洋醫學의 중요한 部分의 하나로, 女性의 독특한 生理·病理를 이용한 診斷·治療를 통해서 女性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왔다.

婦人科疾病에 대한 現存하는 記錄은 商代의 甲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y@dj.u.ac.kr
· 채택일 : 2004년 8월 5일.

1) 洪元植·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社, 2001, p. 164.

骨文字에서부터 시작하였으니 『馬王堆醫書』 및 『內經』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기록에 나타난 疾病의 種類나 治療例 등은 많지 않았다.

이후 張仲景이 『傷寒雜病論』에서 比較的 專門的으로 婦人科疾患에 대하여 論述하여 婦人科疾患의 研究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傷寒雜病論』에서의 病因과 病變에 대한 論述은 『傷寒論』에서 몇 군데 나타나고, 주로 『金匱要略』에서 나타난다.

筆者는 婦人科疾患을 연구하는데 비교적 조기에 이루어진 문헌인 『金匱要略』의 『婦人妊娠病脈證并治』에 대하여 종합적인 理解를 위하여, 原文에 대한 懸吐翻譯과 校勘 등의 研究와 현재 구할 수 있는 注釋書를 蒐集하여 考察을 통하여 얻은 바가 있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본 論文은 『金匱要略』의 原文 順序에 따라 篇을 나누었으며, 校勘·字句解·考察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은 大星文化社에서 1984年度에 影印出版한 『仲景全書』를 底本으로 하였다.

나. 校勘과 字句解는 郭霽春과 王玉興이 編著한 『金匱要略校註語譯』(中國中醫藥出版社 1999)을 주로 參考로 하였다.

다. 字句解는 本文을 理解하는데 꼭 必要한 경우에 限하여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라. 考察은 陳紀藩이 主編한 『金匱要略』(人民衛生出版社, 2002.)을 위주로 參考로 하였다.

마. 本文에 記載된 原文은 條文이라고 名稱하였다.

바. 본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에는 ‘『』’로, 脚注에는 ^{1), 2), 3)}으로, 校勘과 字句解는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III. 研究內容

『原文』 師曰 婦人得平脈하고 陰脈小弱하니 其人渴이오 不能食하고 無寒熱하니 名妊娠이라 桂枝湯主之라 於法에 六十日當有此

証이니 設有醫治逆者는 卻一月加吐下者니 則絕之라

【解釋】

師께서 말하길 婦人의 脈이 平脈이고 陰脈인 尺脈이 小弱하니 그 사람은 口渴이 있고 飲食을 먹지 못하고 寒熱이 없으니 이름하여 妊娠이다. 桂枝湯으로 治療한다. 治法에 六十日이면 마땅히 이러한 證狀이 있으니 가령 醫師가 治療를 잘못하면 한달뒤에 吐下하는 경우가 있으니 곧 治法을 중지해야 한다.

【校勘】

- 婦人得平脈 : 『脈經』에서는 ‘脈婦人得平脈’으로 되어 있다.
- 於法 六十日 : 『脈經』에서는 ‘於 六十日’로 되어 있다.

【字句解】

- 平脈 : 병이 들지 않은 脈으로 正常脈을 말한다.
- 陰脈小弱 : 陰脈은 즉 尺脈을 말한다. 『廣注』에 “寸爲陽脈이니 主氣오 尺爲陰脈이니 主血이라.”고 하였다.
- 六十日當有此證 : 여기서는 月經이 끝난 후 60일이 지나서 惡阻症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 卻一月 : 한 달을 지냈다는 것이다. 卻은 退란 뜻이다. 예를 들면 『國策·秦策』에서 “怒戰栗而卻”라고 하였는데 下란 뜻으로 派生되었다.
- 絕之 : 桂枝湯의 服用을 中止하라는 것과, 藥物의 投與를 中止하라는 것과, 胎兒를 保護하지 않으면 妊娠中絶이 된다는 의미의 세가지로 볼 수 있으나 桂枝湯의 服用을 中止하라는 意味가 가장 적합하다.

【考察】

이 句節은 妊娠의 診斷과 惡阻輕症의 證治를 論述하였다. 生殖年齡에 이른 既婚婦女가 아무런 원인이 없이 生理가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脈은 正常이고 尺脈이 微弱하며 口渴症이 있고, 食事量이 減少되는 등의 症狀이 있으나 形寒身熱의 症狀이 없으면 妊娠한 것이다. 妊娠時 孕婦體內的

陰陽氣血津液 등 精華物質들은 胎兒를 濡養함으로써 口部에 濡潤을 받지 못하여 口渴症이 나고, 肝도 濡養을 받지 못하고 疏泄作用이 失調하여 不能食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몸에 “無寒熱”이라는 것은 外邪를 感受하지 않았다는 것을 說明한다.(孕婦가 妊娠初期에는 形寒不舒 등의 感覺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妊娠反應이다.) 그러나 孕婦가 胎兒를 孕育하는 과정에서 陰陽이 平衡을 잃고 營衛不和의 症狀이 나타날 때는 마땅히 桂枝湯을 사용하여 陰陽과 營衛를 調和시켜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妊娠後 60日정도가 되면 上記 症狀이 나타난다. 만약 醫師가 한달이상 誤治하고 또한 吐, 下法을 써서 치료한다면 脾胃가 損傷을 받고 氣血生化의 源泉이 缺乏해지고 胎兒도 營養을 받지 못하게 되어 때로는 胎動 혹은 落胎가 되고 또한 未熟兒가 될 수 있다.

注意할 것은 原文에서 “婦人得平脈”이라고 하였는데 왜 또 “陰脈小弱”이라고 하였는가? 그 원인은 이 脈은 妊娠後에 胞宮의 氣血이 旺盛할 때의 “婦人手少陰動脈者”(『素問·平人氣象論』), “陰搏兩別謂之有子”(『素問·陰陽別論』)와 相對인 측면에서 論한 것이고 妊娠初期에 胎氣가 아직 盛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며, 病脈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尤在涇은 “陰脈小弱者, 初時胎氣未盛, 而陰方受蝕, 故陰脈比陽脈小弱. 至三四月經血久蓄, 陰脈始強, 內經所謂手少陰動甚者娠子”(『心典』)라고 하였다. 原文中の “渴”을 尤氏は “嘔”로 解釋하였는데, 즉 “其人渴 …… 一作嘔亦通”(『心典』)이라고 하였다. 이 說은 臨床에 아주 부합한 것이다. 그 理由는 妊娠初期에 渴한 者가 嘔한 者보다 보기 드물며 또한 이 證은 妊娠時 血이 胞宮에 聚集되고 肝失所養하여 木犯脾土함으로써 胃氣가 上逆하여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 證은 惡阻에 屬하며 桂枝湯을 사용하여 營衛를 調하고 脾胃를 和해주어 陰陽을 平衡시키면 脾胃의 氣가 下降할 수 있고 嘔證도 사라지게 된다. 當然한 것은 妊娠婦에 있어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脈은 滑數脈이고, 『婦人規·胎孕類』에서 “凡婦人懷孕者, 其血留氣聚, 胞宮內實, 故脈必滑數倍常, 此當然也”라고 하였다.

‘絕之’에 대한 見解는 여러 가지 이다. 첫째는 病의 根源을 없앤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黃元御가

“此中氣之敗, 不關胎故, 則調變中氣, 絕其病本也”(『懸解』)라고 하였다. 둘째는 藥物治療를 中斷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魏念庭이 “卻一月之外, 經不至之時疑爲經閉不行, 或將兩月之際以渴不能食, 爲實邪在胸胃, 誤吐誤下, 將妊娠中之氣血初聚者. 易散矣, 必絕其醫藥”(『本義』)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妊娠을 中斷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唐宗海가 “絕之二字, 究屬何義, 尙待評求. 同年秦鴻儀曰: 此醫治之逆, 在一月, 反吐下之, 則胎動而必墮, 是斷絕其妊娠也, 其說頗通”(『補正』)이라고 하였다. 高學山과 陳修園은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說明하였다. 현대과학적인 사고로 생각해 보면 劣胎를 막고 優生을 強調하는 觀點을 근거로 하여 分析한다면 唐氏의 說이 더욱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原文 2』 婦人宿有癥病하고 經斷未及三月 而得漏下不止하고 胎動在臍上者는 爲癥瘕害라 妊娠六月動者는 前三月經水利時에 胎也라 下血者는 後斷三月坏也라 所以血不止者는 其癥不去故也나 當下其癥이라 桂枝茯苓丸主之라

【解釋】

婦인이 본래 癥病이 있고, 月經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漏下不止하고 胎動이 臍上에 있는 경우는 癥瘕害이다. 妊娠六月에 動하는 경우는 前三월에 經水利時에 胎가 있는 것이다. 下血하는 경우는 後斷三月坏가 된다. 그러므로 血不止하는 경우는 그 癥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니 마땅히 그 癥을 瀉下시켜야 한다. 桂枝茯苓丸으로 主治한다.

【校勘】

- 所以血不止者：『脈經·九卷』에는 ‘所以下血不止者’로 되어 있다.
- 丹皮去心：『直解』, 『二注』, 『心典』, 『正義』에는 ‘去心’이라는 글자가 없다.

【字句解】

- 癥：腹中에 덩어리가 잡히는 것으로, 尤怡는 “舊血所積 爲宿病也”라고 하였다.

- 癩 : 오래되어도 잘 낫지 않는 고질병.
- 𪔑 : 어혈 배, 썩은피 배, 瘀血內結로 癥瘕와 뜻이 서로 통하며, 죽은피로 赤黑色을 띠고 있다.

【考察】

이 구절은 癥病과 妊娠의 鑑別方法 및 癥病의 治法을 아래와 같이 세 방면으로 논술하였다.

瘀血內結과 癥病은 下血을 초래한다. 즉 原文 “婦人宿有癥病”으로부터 “爲癥瘕害”에서 말한 것은 婦人이 원래부터 癥病이 있고, 만약 閉經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치료를 거치지 않았고, 陰道에 流血이 있고 淋漓不止하며, 臍上에 跳動이 있어 마치 임신으로 인한 胎動感이 있는 것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은 血氣가 不暢하고 瘀血이 內結된 것이다. 즉 이것은 원래부터 癥病이 있어 초래된 症狀이므로 ‘爲癥瘕害’라고 하였다. 이때 閉經과 臍上跳動 등 症狀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결코 妊娠인 것이 아니며, 妊娠인 경우의 胎動의 부위는 마땅히 臍下에 있어야 하고, 또한 妊娠4~5個月以後에 나타난다.

妊娠과 癥病의 區別은 原文 “妊娠六月動者”로부터 “後斷三月𪔑也”에서 말한 것이다. 妊娠한지 6個月이 되었을 때 만약 閉經前 3個月 經水가 正常이었고, 6個月이 되었을 때 胎動이 있으며 觸診時 腹部의 피부가 柔軟하면 이것은 바로 임신인 것이다. 만약 閉經前 3個月 經水가 正常이었고 3個月後 下血이 있으며 觸診時 小腹部(아랫배)가 비교적 단단하고 덩어리 같은 것을 만져볼 수 있거나, 또는 痛症이 나타나는 경우는 瘀血內結과 癥病이 있기 때문이다.

原文으로부터 妊娠與否의 診斷依據를 추측할 수 있다. 즉 첫째로 經水의 正常與否를 보고, 둘째로 胎動이 時期에 符合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셋째로 胎動部位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은 모두 臨床에서 참고로 삼을 수 있다. 물론 科學技術의 발전으로 현재 臨床에서는 醫療機器와 生物化學的 檢査를 통하여 妊娠與否를 정확히 診斷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癥病으로 因한 下血不止의 治法에 대

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만약 癥病으로 陰道에 流血이 不止하면 癥積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祛癥化瘀하여야 하고 방제는 桂枝茯苓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절의 뜻에 대하여 여러 醫家들의 見解는 아래의 두가지이다. 그중 첫째 견해는 癥과 胎를 鑑別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金匱教學參考資料·妊娠病脈證并治』에서 “高思潛이 말하기를 ‘按之實際, 癥瘕既阻塞於中, 何得安然受胎, 且胎僅三月, 亦無動在臍上之理也, 餘嘗細釋其文義, 乃知此完全爲胎癥對勘之文, 蓋仲景恐人誤癥作胎, 誤胎作癥, 故兩兩比較之.’”라고 하였고, 이것은 後世에게 啓發作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둘째 견해는 원래 癥病이 있는 者가 임신을 하였을 때에 대한 證治를 말한 것이다. 예를 들면 陳修園은 “此爲妊娠宿有癥病, 而出其方治也”(『淺注』)라고 하였다. 高學山도 “本條十一句, 凡兩段, 前五句爲一段, 辨似胎而非胎之病. 後六句爲一段, 言雖病而暗妊之胎, 總以本方爲主治.”라고 하였는데 이 見解는 臨床에서 參考로 삼을 수 있다. 癥病治療를 근거로 하여 活血力이 弱하고 量이 적으며, 또한 丸劑로 된 桂枝茯苓丸을 選用한 것은 陳氏의 見解가 마치 本文의 원래 뜻에 부합한 것 같다.

‘原文 3’ 婦人懷娠六七月이 脈弦發熱하고 其胎愈脹하고 腹痛惡寒者는 少腹如扇이니 所以然者는 子臟閉故也당시니 當以附子湯溫其臍.이라

【解釋】

婦人이 妊娠을 한지 六七月이 되어 脈弦 發熱하고, 胎兒가 더욱 커지고 腹痛 惡寒한 경우에는 아랫배가 부채와 비슷하게 되니, 그렇게 되는 것은 子宮이 열려있기 때문이니 마땅히 附子湯으로 그 子宮을 따듯하게 하여야 한다.

【校勘】

- 婦人懷娠六七月 : 『脈經·九卷』에는 ‘婦人懷娠六七月’로 되어 있다.
- 其胎愈脹 : 『脈經·九卷』에는 ‘逾腹’으로 되어 있다.
- 少腹如扇 : 『脈經·九卷』에는 ‘少腹如扇之狀’으로 되

어 있다.

【字句解】

- 其胎愈脹：腹脹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말한다.
- 少腹如扇：少腹部가冷하여 마치 바람에 쏘이는 뜻하다.
- 子臟：子宮을 말한다. 『張注』에서는 命門이라고 하였다.

【考察】

이 구절은 陽虛有寒에 屬하는 妊娠腹痛의 證治를 논술한 것이다. 原文을 縱覽하면 임신한지 六七個月이 되어, 脈이 弦하고, 發熱이 있고, 腹部가 점차 커지고, 또한 痛症이 있으며, 惡寒을 느끼고, 少腹部에 바람이 쏘이는 듯한 증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子臟開故也”라고 하였으니 子宮이 寒冷하여 나타난 症狀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冷은 어떻게 온 것일까? 妊娠한지 六七個月이 되면 胎兒가 점차 커지고 母體의 氣血의 榮養이 필요하게 되며 또한 陰陽의 柔潤과 溫煦가 더욱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 몸이 원래부터 陽虛한 者라면 妊娠後 陽氣가 자주 不足하게 되고 陽虛로 말미암아 內寒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少腹如扇 등 증상은 陽虛陰寒內盛으로 因하여 發生된 것이다. 原文에서 말한 “當以附子湯溫其臟”에 依據하면 이 證은 반드시 陽虛陰寒內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臨床에서 『婦人規·安胎』에 말한 “胎氣有寒而 不安者, 其症或吞酸, 吐酸, 或嘔惡脹滿, 或喜熱畏 涼, 或下寒泄瀉, 或脈多沈細, 或絕無火證, 而胎有不安者, 皆屬陽虛寒證, 但溫其中而胎自安矣. 宜用溫胃散, 理陰煎之類加減主之. 亦當以平素之臟氣, 察其何如, 酌而用之.”라는 것을 參考할 수 있다.

附子湯은 이 책에 記載되지 않았지만 多數의 醫家들은 『傷寒論·少陰』篇에 기재된 附子湯(이 方劑는 炮附子, 茯苓, 芍藥, 白朮, 人蔘으로 구성되었다)일 가능성이 많다고 인정하는데 이 說에 대하여 臨床에서 參考할 수 있다.

『原文 4』師曰 婦人有漏下者하고 有半產後因統下血都不絕者

하고 有妊娠下血者하고 假令妊娠腹中痛하면 為胞阻니 膠艾湯主之라

【解釋】

仲景先生이 말씀하시기를 婦人이 漏下가 있는 경우가 있고, 遺產後 계속하여 下血이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고, 妊娠中에 下血하는 경우가 있으니, 假令 妊娠腹痛은 胞阻가 되니 膠艾湯으로 主治한다.

【校勘】

- 有半產後因續下血都不絕者：『脈經·九卷』에서는 ‘半產’을 ‘中生’이라고 하였다.
- 爲胞阻：『脈經·九卷』에서는 ‘爲胞漏’로 되어 있다.

【字句解】

- 漏下：生理期間이 아니면서 陰道에서 出血하는 경우를 말한다.
- 半產：『金鑑』에서 “五六墮胎者를 謂之半產이라”고 하여 遺產되는 것을 말한다.
- 胞阻：『諸病源候論』에 “漏胞者는 謂妊娠數月에 而經水時下라”고 하여 妊娠中에 下血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다른 意味로는 妊娠腹痛, 즉 妊娠婦의 小腹作痛을 가리키는 것으로 『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에서 “孕婦腹痛, 名爲胞阻.”라고 하였다.

【考察】

이 구절은 婦人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세 가지 下血症의 證治를 논술한 것이다. 女子는 肝을 先天으로 삼고 血을 用으로 하며, 건강한 사람은 生理가 규칙적으로 오는데 정상적인 生理期 外에 나타나는 下血은 모두 異常한 現象이다. 이 구절은 婦人의 세 가지 下血症을 말하였는데, 첫 번째는 漏下를 말하였고, 두 번째는 半產 後에 연속적으로 下血이 멈추지 않는 症狀을 말하였으며, 세 번째는 妊娠下血에 腹痛이 兼한 症狀을 말하였다. 상기 症狀은 모두 衝任이 虧損되고 陰血이 失守하였고 寒氣가 凝滯되어 發生한 것으로써 마땅히 衝

任을 調補하고 養血溫宮하며 祛寒止血을 해야 하고 方劑는 膠艾湯을 사용한다.

上記 下血은 膠艾湯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또한 『婦人規·妊娠卒然下血』에 記載된 “妊娠忽然下血，其證有四：或因大熱，迫血則妄行，或因鬱怒，氣逆則動血，或因損觸胎氣，胞宮受傷而下血，或因脾胃氣陷，命門不固而脫血。凡者皆動血之最者也。不速爲調經，則必致墜胎矣。然治此者，必先察其邪之微甚，如火猶未清，仍當清火，氣猶未順，仍當順氣。若因邪而動血，血去而營虛，則速當專顧元氣，以防脫陷。此中或當治標，或當救本，或當兼標本而調理之。倘不知先後緩急，將恐治標未已而救本無暇也，當詳察之。”를 參照할 수 있다.

『原文 5』 婦人懷妊에 腹中疔痛은 當歸芍藥散主之라

【解釋】

婦人이 妊娠을 하였는데 배에 疔痛이 있으면 當歸芍藥散으로 主治한다.

【字句解】

- 疔痛：『論註』에서는 ‘綿綿而痛’이라고 하였고, 『本義』에서는 ‘腹中急也’라고 하여, 은근히 지속적으로 아프다는 것과, 배가 갑자기 아프다 또는 땡긴다는 의미가 있다.

【考察】

이 구절은 肝脾不和로 초래한 妊娠腹痛의 治法을 논술한 것이다. 앞의 구절에서 胞阻는 衝任이 虛寒하고 陰血이 胞宮에 內守하지 못하고 寒이 있어 초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本 구절은 妊娠婦의 腹痛은 肝脾不和로 因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렇게 인정하는 理由는 사용한 처방을 통하여 그 證을 推測할 수 있기 때문이다. 胎兒는 孕婦의 氣血로 養하며 만약 孕婦가 원래부터 氣血이 부족하여 몸속의 血이 胎兒를 養하는데 만 쓰이고 肝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肝氣가 不舒하게 되고, 또한 몸속

의 氣는 胎兒만 養하므로 脾臟이 運化작용이 不健하게 되어 濕濁이 內生되고 肝脾가 不和하게 되며 血虛濕生하므로 따라서 氣血運行이 不暢하게 되고 胎失所養하기 때문에 腹中疔痛이 나타난다. 사용한 처방을 통하여 그 證을 推測한다면 마땅히 頭暈, 小便不利 혹은 약간의 下肢浮腫 등 症狀이 있을 것이며, 養血舒肝과 健脾利濕의 方法으로 치료하여야 하고 方劑는 當歸芍藥散을 선택할 수 있다. ‘疔痛’이라는 것은 急痛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痛症인지에 대하여 歷代醫家들의 爭論은 끝지지 않았고, 實際狀況에서는 마땅히 辨證을 基準으로 삼아야 하고, 急痛이든 아니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痛症이든 관계없이 일단 肝血不足, 脾虛濕盛한 者에 속한다면 모두 이 方劑를 選用할 수 있다.

『原文 6』 妊娠 嘔吐不止하면 乾薑人參半夏丸主之라

【解釋】

妊娠中에 嘔吐가 그치지 않으면 乾薑人參半夏丸으로 主治한다.

【校勘】

【字句解】

- 妊娠 嘔吐不止：妊娠惡阻를 말한다.

【考察】

이 구절은 胃虛寒飲이 盛한 惡阻證의 證治를 논술한 것이다. 惡阻의 含義에 대하여 傅青主는 “婦人懷妊之後，惡心嘔吐，思酸解渴，見食憎惡，困倦欲臥，人皆惡阻也”(『傅青主女科·女科下卷』)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病의 病因은 “胃氣弱而兼滯者多有之”(『婦人規·惡阻』)이라고 하였고, 證治에는 “虛實不同，當辨而治之”해야 한다고 하였다. 惡阻가 輕한 者는 일반적으로 치료할 必要가 없으며 多數가 스스로 緩解될 수 있다. 本 구절에서 말한 “妊娠

嘔吐不止”는 惡阻의 비교적 重한 證이고 또한 嘔吐時間이 비교적 오래되었으며, 處方으로부터 추측한다면 이 惡阻는 胃虛寒飲과 氣機上逆으로 초래된 것이다. 그리고 嘔吐物은 淸稀한 痰涎이 많고, 口乾不渴하며 혹은 渴症으로 熱飲을 좋아하지만 飲量이 많지 않는 등 증상들이 있는데, 마땅히 溫補脾胃, 蠲飲止嘔하는 方法으로 治療해야하고 方劑는 乾薑人蔘半夏丸을 사용한다. 만약 脾胃虛寒에 氣虛가 甚한 者라면 『新方八陣·熱陣』중의 六味異功煎(이 方劑는 人蔘, 白朮, 茯苓, 甘草, 陳皮, 乾薑으로 조성되었다)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惡阻가 肝腎陽虛한 者라면 理陰煎(이 方劑는 熟地, 當歸, 炙甘草, 乾薑 혹은 加肉桂로 組成되었다)을 사용할 수 있다.

『原文 7』妊娠에 小便難이오래 飲食如故이면 當歸貝母苦參丸主之

【解釋】

妊娠中에 小便을 보기 힘들더라도 飲食먹는 것이 이상이 없으면 當歸貝母苦參丸으로 主治한다.

【校勘】

- 飲食如故 : 『脈經·九卷』에는 ‘飲如故’로 되어 있다.

【字句解】

- 小便難 : 小便難과 小便不利는 구별을 하여야 한다. 小便難은 小便볼 때 간간히 통증이 있으며, 小便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小便不利는 小便을 아주 못보는 것을 말한다.

【考察】

이 구절은 妊娠血虛熱鬱으로 因한 小便不利證의 證治를 論술한 것이다. 妊娠小便難이란 妊娠期間에 小便이 不利하거나 혹은 淋漓不暢하고 灼熱이 자주 同伴하며, 혹은 疼痛이 있는 證인데, 後世에 서 子淋이라고 稱한다. 張景岳은 “若小便澀少, 或

成淋漓名子淋”이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處方을 통하여 妊娠血虛有熱하고 氣鬱化燥하며 濕熱이 膀胱에 內蘊되어 氣化가 不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推測하여 알 수 있다. 養血潤燥하고 淸利濕熱하는 方法으로 治療한다. 方劑는 當歸貝母苦參丸을 選用하여 治療해야 한다. 證의 狀況에 따라 安營散(이 方劑는 麥冬, 當歸, 通草, 滑石, 燈芯, 甘草, 人蔘, 細辛 등으로 조성되었다)도 選用할 수 있다. 이 병이 上述한 病機外에 氣虛, 腎虛 혹은 氣血不足 등에 依해서도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八珍湯, 八味丸(『景岳全書·卷三十八』)을 選擇하여 治療할 수 있다.

『原文 8』妊娠有水氣이아 身重하고 小便不利하고 瀧漸惡寒하고 起即頭眩이면 葵子茯苓散主之

【解釋】

妊娠中에 水氣가 停滯되어 몸이 무겁고, 小便을 보지 못하고, 물을 뒤집어 쓴듯 오슬오슬 춥고, 일어서면 어지러운 症狀이 생기면 葵子茯苓散으로 主治한다.

【校勘】

- 瀧漸惡寒 : 『脈經·九卷』에 “瀧瀧惡寒”으로 되어 있다.

【考察】

이 구절은 妊娠水氣證의 證治를 論술한 것이다. ‘水氣’는 氣化不利를 가리킨다. “身重, 小便不利”는 氣化不利와 水濕停聚로 因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重한 者는 身腫이 나타나고, 흔히 ‘子腫’이라고 稱한다. 濕阻陽遏하면 陽氣가 外部로 布達될 수 없어 瀧漸惡寒症이 나타나고 濕阻於內하고 淸陽不昇하면 起即頭眩症이 나타난다. 諸症은 水氣內停하고 陽氣受阻하여 발생된 것이다. 小便不利는 비록 이 證의 標이지만 利小便해주는 것이 급선무이고 따라서 속히 通竅利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방제는 葵子茯苓散을 選用한다.

子腫은 水氣內停으로 因하여 발생하고, 水氣內停

을 일으키는 原因은 많으나 脾肺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臨證時 『傳青主女科·妊娠浮腫』에서 말한 “妊娠有至五個月，肢體倦怠，飲食無味，先兩足腫，漸至通身頭面俱腫，人以爲濕氣使然也，誰知是脾肺氣虛乎！夫妊娠雖有按月養胎之分，其實不可拘於月數，總以健脾補肺爲大綱。蓋脾統血，肺主氣，胎非血不蔭，非氣不生，脾健則血旺而蔭胎，肺清則氣旺而生子。苟肺衰則氣餒，氣餒則不能運氣於皮膚矣，脾虛則血少，血少則不能運血於肢體矣。氣與血兩虛，脾與肺實職，所以飲食難消，精微不化，勢必致氣血下陷，不能升舉，而濕邪即乘其所虛之處，積而成浮腫症，非由肺脾之氣血虛而然耶。治法當補其脾之血與肺之氣，不必祛濕，而濕自無不去之理，方用加減補中益氣湯”(이 방제는 人蔘, 黃芪, 柴胡, 甘草, 當歸, 白朮, 茯苓, 升麻, 陳皮로 조성되었다)을 閱讀하여 參照할 수 있다.

『原文 9』 婦人妊娠宜常服當歸散主之⁴

【解釋】

婦人の 妊娠에는 마땅히 當歸散을 常服하여야 한다.

【校勘】

· 宜常服當歸散主之：『脈經·九卷』에 ‘宜服當歸散’으로 되어 있다.

【考察】

이 구절은 血虛濕熱로 인한 胎動不安證의 治法을 논술한 것이다. 婦人이 妊娠한 후 氣血이 衝任에 聚集되어 胎兒를 養育한다. 만약 肝血이 不足하고 脾氣가 虛弱하여 濕이 안으로부터 발생하게 되고 鬱而化熱하면 胎失所養으로 胎動不安을 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妊娠時에 腰酸腹痛이 나타나고 혹은 下腹이 墜脹하거나 또는 少量의 陰道出血이 同伴될 수 있다. 치료는 마땅히 當歸散을 사용하여 補血養肝하고 健脾祛濕清熱해야 하며, 胎兒가 榮養을 받게 되면 安靜이 된다.

原文의 ‘常服’이란 말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理

解를 해야 하는데, 그 뜻은 모든 孕婦가 이 處方을 항상 服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血虛脾弱과 濕熱內生의 證이 나타난 者에만 服用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상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服用後 症狀이 사라지면 즉시로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方劑의 뒷부분에서 말한 “妊娠常服即易產，胎無疾苦，產後百病悉主之”에 대해서도 역시 靈活하게 理解를 해야 하고, 반드시 半產이나 혹은 胎漏한 病史가 있었던 者에 限하여 辨證을 거쳐 이 처방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곳에만 구애해서는 안된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비록 胎動不安이 있더라도 그 證을 辨하고 상응한 治法을 定해서 알 맞는 처방을 선택해야 하며, 처방은 證에 따라 변화하고 藥은 처방에 따라 變動해야 한다.

『原文 10』 妊娠養胎宜白朮散主之⁴

【解釋】

妊娠의 養胎에는 白朮散으로 主治한다.

【考察】

이 구절은 脾虛寒濕으로 인한 胎動不安證의 治法을 논술한 것이다. 妊娠期間에 孕婦는 자주 陰陽氣血이 偏盛하거나 偏衰한 區別이 있는데, 만약 陽虛한 몸에 脾가 虛하면 쉽게 濕이 生기고, 濕이 寒化하여 脾虛寒濕이 胎兒를 損傷하며 上述한 胎動不安의 症狀外에 腕腹時痛, 嘔吐清涎, 食減, 白帶가 많은 등 症狀도 나타난다. 白朮散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하고 健脾溫中하고 祛寒除濕하여 安胎해야 한다.

臨證時 胎動不安의 證治에 대하여 위에 구절과 本 구절 外에 또한 『景岳全書·卷三十八』에서 말한 “胎氣有熱而不安者，氣證必多寒熱，或渴，或燥，或上下不清，或漏血，或溺赤，或六脈滑數等證，宜涼胎飲(이 방제는 生地, 芍藥, 黃芩, 當歸, 甘草, 枳殼, 石斛, 茯苓 등으로 조성되었다), 保陰煎(이 방제는 生地, 熟地, 芍藥, 山藥, 川續斷, 黃芩, 黃柏, 生甘草

등으로 조성되었다), 一母丸(이 방제는 知母, 棗仁, 人蔘으로 조성되었다), 黃芩散(이 방제는 黃芩과 술로 조성되었다)등과 같은 방제들을 選用할 수 있다. 그 火를 淸해주면 胎兒는 자연히 安靜될 수 있다.”는 것을 參考할 수 있다.

『原文 11』 婦人傷胎에 懷身腹滿하고 不得小便하고 從腰以下重하면 如有水氣狀이라 懷身七月에 太陰當養不養하면 此心氣實이니 當刺瀉勞宮及關元하고 小便微利則愈라

【解釋】

婦인이 胎를 傷함에 妊娠을 하여 腹滿하고 小便을 보지 못하고 허리아래가 무겁게 느껴지면 水氣가 있는 것이다. 妊娠한지 7개월째에 太陰이 마땅히 養하여야 하는데 養하지 못하면 이것이 心氣實한 것이니 마땅히 勞宮과 關元을 刺鍼하여야 하고, 이때 소변이 약간 나오게 되면 곧 낫게 되는 것이다.

【校勘】

- 婦人傷胎 : 『金匱玉函經』에는 “婦人傷寒”으로 되어 있다.
- 此心氣實 : 俞橋本 淸初本에는 ‘以心氣實’로 되어 있다.
- 小便微利則愈 : 『脈經·九卷』과 『玉函』에 ‘小便利則愈’로 되어 있다.
- 當刺瀉勞宮及關元 : 『金匱玉函經』에는 “當刺瀉勞宮及小腸之募”로 되어 있다.

【字句解】

- 勞宮, 關元 : 두가지 모두 穴名이다.
- 太陰 : 手太陰肺經을 말한다.

【考察】

이 구절은 妊娠心氣實로 傷胎한 證의 證治를 논술한 것이다. 妊娠한 후 “七月始成其骨, 手太陰脈養之”하고, 이때 만약 ‘心氣實’(‘實’은 邪氣가 實하다는 것을 가리키며, 즉 火氣가 盛하다는 뜻이다)하면 心火가 熾盛하여 자주 肺金을 쉽게 傷하고 肺病으로 水道를 通調하지 못하면 小便이 적어지

고 즉 溲少하고, 따라서 懷身腹滿하고 腰以下가 더 甚하고 마치 水氣와 같으며, 이것은 “太陰當養不養”하였기 때문이다. ‘太陰’이란 두 字는 마땅히 ‘手太陰’으로 理解한다면 더욱 適切하다. 즉 肺金이 心火의 制約을 받아 養胎를 할 수 없어 上述한 諸症이 나타난 것이고, 따라서 原文에서 “此心氣實”이라고 하였다. 이때 勞宮과 關元의 두 穴로 치료할 수 있는데, 勞宮은 心의 主穴이고 針刺하면 心의 邪氣를 瀉할 수 있고, 關元을 針刺하면 行氣利水할 수 있다. 즉 瀉心火와 利水氣의 방법으로 小便을 通利하게 하면 病證이 사라진다. 따라서 原文에서 “小便微利則有”라고 하였고, ‘微利’란 두 字는 『脈經』과 『千金翼方』등을 고찰한 결과 모두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뜻에 따르는 것이 適宜한 것이다.

여기에서 “七月 …… 手陰脈養”이란 말을 引用하였는데, 『千金翼方』에 記載한 徐之才의 逐月養胎中에서 말한 文句에서 나온 것이며, 그는 “妊娠一月, 足厥陰脈養 …… 二月足少陽脈養 …… 三月手心主脈養 …… 四月手少陽脈養 …… 五月足太陰脈養 …… 六月足陽明脈養 …… 七月手太陰脈養 …… 八月手陽明脈養 …… 九月足少陰脈養 …… 妊娠十月, 五臟俱備, 六腑齊通, 納氣於丹田, 故使關節人神皆備, 但俟時而生”이라고 하였다. 이 理論을 바탕으로 臨床에서 實驗을 하면 一致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千金』에 기록된 “妊娠一月始胚, 二月始膏, 三月始胎, 四月形體成, 五月能動, 六月筋骨立, 七月毛髮生, 八月臟腑具, 九月穀氣入胃, 十月諸神備, 日滿卽產矣”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胚胎의 發育科程과 符合된다. 이 見解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IV. 結 論

본 편에서는 주로 妊娠惡阻, 妊娠腹痛, 妊娠下血, 妊娠小便不利, 妊娠水氣 및 胎動不安 등의 證狀들을 논술하였다. 그 내용에는 妊娠의 診斷과 養胎法도 言及되었다.

妊娠의 診斷은 切脈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陰脈小弱”이 있고, 또한 『內經』중의 「平人氣象論」, 「陰陽別論」, 「腹中論」等篇에 記載된 妊娠之脈을 參考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직 臨床診斷의 한 가지 根據일 뿐 臨證에서는 參考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너무 구애해서는 안된다. 生理가 오는 狀況 등을 結付하여야만 正確한 診斷을 할 수 있다.

妊娠惡阻의 輕證은 脾胃不和와 營衛不調로 인하여 초래된 者이고 食減, 嘔吐 등 증상이 있는데 마땅히 陰陽을 調하고 營衛를 和해주어야 하며 桂枝湯을 選用한다. 病證이 重하고 脾胃虛弱과 寒飲內停으로 嘔吐不止의 症狀이 있는 者는 溫中益氣하고 蠲滯降逆하는 方法으로 치료해야하고 方劑는 乾薑人參半夏丸을 選用한다.

妊娠腹痛의 病機는 각자 다르고 治法도 차이점이 있다. 兩虛寒盛으로 초래된 者는 腹痛惡寒 등의 증상이 있고 溫陽祛寒의 方法으로 치료하고 方劑는 附子湯을 選用한다. 衝任이 虛寒하여 초래된 者는 腹痛과 下血 등 증상이 있으며 溫經暖宮의 方法으로 치료하고 方劑는 膠艾湯을 選用한다. 肝脾不和로 초래된 者는 腹痛頭暈 등 증상이 있고 養肝健脾의 方法으로 치료를 하며 方劑는 當歸芍藥散을 選用한다. 證에 근거하여 當歸散과 白朮散을 選用할 수도 있다.

妊娠下血은 虛實로 구분된다. 實한 者는 祛瘀除癥해야하고 方劑는 桂枝茯苓丸을 사용한다. 虛한 者는 衝任이 不固하고 寒에 屬한 者는 溫經補血과 調理衝任을 하여야 하며 方劑는 芎歸膠艾湯을 사용한다.

妊娠小便의 病變이 血虛有熱와 氣鬱化燥로 초래된 者는 養血潤燥와 清熱解鬱의 方法으로 치료하여야 하고 方劑는 當歸貝母苦參丸을 사용한다. 氣化受阻와 水氣內停으로 초래된 者는 通竅利水하는 方法으로 치료하여야 하고 方劑는 葵子茯苓散을 사용한다.

胎動不安이 血虛濕熱로 초래된 者는 養肝(血), 益脾(氣), 清熱除濕하는 方法으로 치료하여야 하고 方劑는 當歸散을 사용한다. 脾虛寒濕으로 초래된 者는 健脾除濕과 溫中安胎하는 方法으로 치료하여야 하고 方劑는 白朮散을 사용한다.

본 편에서 言及한 傷胎의 證治는 臨證時 參考로

삼을 뿐 너무 그에 구애하지 말아야 한다.

參 考 文 獻

1. 高學山, 金匱要略脈證治療,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8.
2. 郭秀梅: 日本醫家金匱要略注解輯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9.
3. 南京中醫藥大學: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4.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丹波元胤: 『金匱玉函要略述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明青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樸憲在: 金匱要略, 書苑堂, 1978.
8. 範式則: 金匱辨解(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9. 孫思邈: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10. 徐彬: 金匱要略論注(中國醫學大系), 麗江出版社, 1987.
11. 沈明宗, 沈注金匱要略, 中國醫學大成(第二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2. 楊醫亞: 金匱中醫自修讀本, 北京,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13. 嚴鴻志: 金匱廣義(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14. 蘇寶剛: 金匱要略講義, 北京, 學苑出版社, 1995.
15. 葉子雨: 金匱要略闕疑(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16.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7.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補社, 1983.
18. 王玉興: 金匱要略方論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9. 李彭: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0. 李克光: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1.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北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22. 李東建: 國譯 金匱要略, 書苑堂, 1996.
23. 尤怡: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24. 魏荔彤: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5. 俞嘉言: 醫門法律(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26. 張裕薰, 宋代以前의 婦人科 疾病史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
27. 張志聰: 金匱要略注(明青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8. 曹家達: 金匱發微(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29. 朱光被: 金匱要略正義(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30.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31. 陳念祖: 金匱要略淺注, 北京,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 67年.
32.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一中社, 2001.
33. 黃元御: 金匱懸解(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